

## 2011년 1분기 게임산업 상장사 수출액

<표> '10년 1분기~'11년 1분기 게임산업(상장사별) 수출액 변동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10년 수출액				2010년	2011년 수출액	
	1분기 (전기대비)	2분기 (전기대비)	3분기 (전기대비)	4분기 (전기대비)		1분기 (전기대비)	전년동기
NHN	16.3 (0.8%)	14.4 (-11.7%)	16.1 (11.8%)	0.4 (-97.5%)	47.2	64.4 (161,500.0%)	3865.6%
엔씨소프트	239.0 (-21.1%)	249.0 (4.2%)	244.4 (-1.9%)	247.5 (1.3%)	979.9	256 (3.4%)	7.1%
네오위즈게임즈	292.0 (51.8%)	345.9 (18.5%)	450.0 (30.1%)	519.1 (15.4%)	1,607.0	688.1 (32.6%)	135.7%
게임하이	13.6 (-59.2%)	10.5 (-22.8%)	10.2 (-2.9%)	8.2 (-19.6%)	42.5	7.1 (-13.4%)	-47.8%
액토즈소프트	259.8 (-20.2%)	251.0 (-3.4%)	239.1 (-4.8%)	232.4 (-2.8%)	982.3	220.2 (-5.2%)	-15.2%
웹젠	25.3 (-18.2%)	16.8 (-33.6%)	40.3 (139.9%)	53.2 (32.0%)	135.6	69.5 (30.6%)	174.7%
와이디온라인	76.7 (-2.3%)	78.1 (1.8%)	75.9 (-2.8%)	72.4 (-4.6%)	303.1	67.8 (-6.4%)	-11.6%
이스트소프트	13.3 (4.0%)	20.3 (52.8%)	13.9 (-31.4%)	35 (151.8%)	82.4	17.2 (-50.9%)	29.8%
한빛소프트	52.8 (-18.4%)	56.0 (6.0%)	34.5 (-38.4%)	38.1 (10.4%)	181.4	25.4 (-33.3%)	-51.9%
컴투스	10.1 (-18.1%)	12.9 (27.7%)	17.3 (34.1%)	18.1 (4.6%)	58.4	25.3 (39.8%)	150.5%
엠펜	59.5 (0.3%)	49.3 (-17.3%)	48.8 (-0.9%)	45.8 (-6.1%)	203.4	49.4 (7.9%)	-17.0%
드래곤플라이	40.7 (7.5%)	40.4 (-0.6%)	47.9 (18.5%)	50.2 (4.8%)	179.2	57.2 (13.9%)	40.6%
와이엔케이코리아	15.8 (-17.9%)	17.2 (8.9%)	14.7 (-14.5%)	9.1 (-38.1%)	56.8	10.9 (19.8%)	-31.0%
제이씨엔터테인먼트	18.7 (-39.2%)	30.6 (63.6%)	14.3 (-53.3%)	30.7 (114.7%)	94.3	15.4 (-49.8%)	-17.6%
바른손게임즈	19.7 (0.2%)	18.0 (-8.6%)	18.8 (4.4%)	18.2 (-3.2%)	74.7	22.1 (21.4%)	12.2%
소프트맥스	0.7 (-75.9%)	0.0 (-98.6%)	0.6 (5,900.0%)	0.4 (-33.3%)	1.7	0 (-100.0%)	-100.0%
조이맥스	71.7 (1.8%)	70.9 (-1.1%)	63.0 (-11.1%)	105.2 (67.0%)	310.8	54.9 (-47.8%)	-23.4%
게임빌	4.8 (7.2%)	11.4 (138.2%)	6.7 (-41.3%)	8.5 (26.9%)	31.4	12.1 (42.4%)	152.6%
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	30.8 (-63.7%)	33.1 (7.6%)	34.7 (4.8%)	25.6 (-26.2%)	124.2	27.9 (9.0%)	-9.4%
합계	1,261.2 (-13.3%)	1,325.8 (5.1%)	1,391.2 (4.9%)	1,518.1 (9.1%)	5,496.3	2,272.9 (49.7%)	(80.2%)

● 게임 '11년 1분기 수출액은 약 2천27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.2% 성장했으며 전분기대 49.7% 상승하여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 성장을 주도

- '11년 1분기 전체 콘텐츠 상장사 수출액 중 비중은 81.0%로 '10년 4분기 수출액 비중 75.5%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며 '10년 3분기 이후 수출비중 상승

- '11년 1분기 수출에서 네오위즈게임즈는 전년동기대비 135.7%,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152.6% 성장하는 등 자금력 및 신작개발력이 높아 대내외 경쟁력을 보유한 대형업체가 수출을 주도. 대형업체중 액토즈소프트는 3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'11년 1분기에 이르러 전년동기대비 -15.2% 감소해 하락세가 두드러짐

※ 엔씨소프트는 '11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7.1% 성장하여 다른 대형업체에 비해 수출 증가율이 다소 낮은 수준

- 중소형 업체 중에서 웹젠, 이스트소프트, 컴투스, 드래곤플라이, 바른손게임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의 경우 '11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수출 부진상태를 보이고 있음

※ 모바일 게임업체인 컴투스는 국내의 스마트폰 등의 폭발적인 보급확대로 스마트폰용 게임 수요 증대 및 이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응으로 큰 폭의 수출증대가 나타남. '11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50.5%(46.8%)<sup>1)</sup> 성장하여 '10년도에 이어 '11년에도 수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

<그림> '10년 1분기~'11년 1분기 게임(상장사) 수출액 변동

(단위: 억원, %)



1) '10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성장률